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 2011년도 제22차 회의

1. 일 자 2011년 9월 22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임 승 태 위 원 (의장직무대행)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이 주 열 위 원 (부총재)
4. 결석위원 김 중 수 의 장 (총재)
5. 참 여 자 강 태 혁 감 사 장 병 화 부총재보  
이 광 준 부총재보 장 세 근 부총재보  
박 원 식 부총재보 이 상 우 조사국장  
정 희 전 정책기획국장 민 성 기 금융시장국장  
김 종 화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용 회 공보실장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41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1년 9월)(안)>

(1) 2011년 9월 8일 제21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 제41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1년 9월)(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관위원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작성시 중점을 둔 부분은 첫째,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서술을 보강한

점, 둘째, 국내외 금융·경제 동향 및 통화정책의 주요 관심사항과 관련하여 심층적 기술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참고(box)를 통해 제공한 점, 셋째, 금융·경제 동향부문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 추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균형 있게 기술한 점, 넷째, 통화신용정책 운영부문에서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기준금리 정상화를 추진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기술한 점, 그리고 끝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및 방향부문에서는 조사국의 '2011년 경제전망'(7월)을 토대로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한 점 등임

심의위원회에서는 동 보고서(안)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였는 바, 주요 수정·보완한 사항을 보면 2011년 8월 이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면서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 국내경제의 성장경로 불확실성 증대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하여 경제동향 및 전망 부분의 서술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 물가의 상방위험을 보다 구체화하여 적시한 점, 금년 1~8월중 통화정책결정의 배경에 대한 서술을 보완하여 최근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총액한도 대출금리를 최소한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세부내용을 중요도 순으로 재배치하고 일부 표현을 수정한 점,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 둔화 배경, 신흥시장국 물가 동향,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술한 점, 8월 하순 이후의 금융시장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점, 유럽지역 국가채무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증대 등 최근 진행상황을 추가하여 기술한 점, '최근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속도 비교'를 추가하여 글로벌 물가상황을 비교·분석한 점 등임

## (2)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1년 9월)(심의위원회안)(생략)

## 〈의안 제42호 — 2011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직무대행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42호 — 「2011년 4/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중기대출 연체율, 전국어음부도율 등이 낮은 수준에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해외위험요인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8월중 중소제조업 및 조선업의 자금사정 BSI가 하락하는 등 일부 부진업종을 중심으로 체감자금사정이 다소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가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침 등으로 그간의 완화기조에서 조금씩 악화될 전망이다 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유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1년 4/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전분기와 동일한 7.5조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다른 위원들도 이에 동의하였음

##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 · 가결

의결사항

2011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7조 5,000억원으로 정한다.